

# 9년 전 탄생한 아기공룡 NC, 리그 휩쓴 거대 공룡으로 '우뚛'

남은경기 관계없이 정규시즌 우승...2011년 9번째 구단  
김경문 감독 1대 사령탑 선임 나성범·박민우 등 지명  
1군 4년만에 KS 진출...2019년 이동욱 2대 감독 선임

9년 전의 아기공룡이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해 리그를 집어삼켰다. 강산이 거의 변하는 사이 NC 다이노스의 몸집은 KBO리그에서 가장 거대해졌다.

NC는 2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쏘 KBO리그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2회 접전 끝에 3-3으로 비겼다.

81승5무53패를 기록한 NC는 남은 5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잔여경기를 모두 패하면 NC의 최종 성적은 81승5무53패가 된다. KT 위즈가 전승을 거두면 83승1무60패로 두 팀의 승차가 같지만 승률(NC 0.583·KT 0.580)에서 NC가 앞선다. LG는 다 이겨도 81승4무59패로 NC에 승차에서 0.5경기 뒤진다.

NC 역사의 시작은 2010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NC는 그해 12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프로야구 9구단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같은 경쟁권을 얻고도 하는 롯데 자이언츠의 반대로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무난히 9번째 구단으로 인정 받았다.

두산 베어스와 대표팀에서 지도력을 입증한 김경문 감독을 1대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신인 드래프트에서 나성범, 박민우 등을 지명해 구색을 갖춘 NC는 2012년을 2군에서 보낸 뒤 2013년 본격적으로 1군 경쟁에 뛰어들었다.

NC는 데뷔 시즌 52승4무72패로 7위를 차지했다. 승패 마진은 -20이었지만 첫 시즌부터 KIA 타이거즈(61승3무74패)와 한화 이글스(42승1무85패)를 뒤로 두는 성과를 냈다.

2년차 때는 대형사고를 쳤다. 무려 70승1무57패의 성적으로 두산, LG, SK 등 강호들을 제치고 9개팀 중 당당히 3위를 차지했다.

신생팀 전력 상상을 위해 다른 팀보다 1명 많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가동한 효과와 젊은 선수들의 기량 상승이 맞물리면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팀으로 거듭났다.

NC는 2015년에도 쑥쑥 자랐다. 5월에만 20승을 거둬 팀 월간 최다승 타이 기록을 수립하는 등 거침없이 전진한 끝에 정규시즌을 2위로 마쳤다. 지금은 메이저리그(MLB)로 건너간



테임즈는 KBO리그 최초 40홈런-40도루의 금자탑을 세웠다.

2016년은 NC가 가장 우승에 가까웠던 해다. 83승3무58패로 정규시즌 2위에 등극한 NC는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를 3승1패로 누르고 고대하던 한국시리즈에 안착했다.

당시 정규시즌에서만 93승(1무50패)을 쓸어 담은 두산에 4연패를 당해 우승 반지는 손에 넣지 못했지만 1군 진입 4년 만의 한국시리즈

진출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 했다.

2017년을 4위로 마친 NC는 2018년 변화와 마주했다.

유영준 감독대행 체제로 잔여시즌을 소화한 NC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 창단 첫 최하위를 맞았다.

2019년 NC는 '박동 : 팀 다이노스, 하나의 심장을 깨워라'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재도약을 꾀한다. 출범부터 수비코치를 맡

아 팀 사정을 잘 아는 이동욱 감독을 2대 사령탑으로 임명해 새 출발을 알렸다.

더불어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리그 최고 포수인 양의지를 4년 총액 125억원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붙잡는데 성공, 순식간에 전력을 끌어올렸다.

정규리그 5위로 다시 가을야구의 맛을 본 NC는 올해 마침내 리그 정복이라는 꿈을 이루는데 성공했다.

정승호기자

## 탬파베이, WS 4차전 짜릿한 끝내기 승... '대타' 최지만 2볼넷

시리즈 전적 2승 2패 동률  
오늘 같은 장소에서 5차전

탬파베이 레이스가 월드시리즈(WS·7전 4선승제) 4차전에서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시리즈 균형을 맞췄다.

탬파베이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2020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월드시리즈(WS·7전 4선승제) 4차전에서 9회말 브렛 필립스의 적시타와 상대의 실책으로 2점을 올려 8-7로 역전승을 거뒀다.

1승 2패로 끌려가던 탬파베이는 4차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즈 전적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다.

다저스는 빠이론 실책으로 다 잡은 승리를 놓치면서 탬파베이의 추격을 허용하고 말았다.

9회말 나온 다저스의 결정적인 실책이 승부를 갈랐다. 6-7로 끌려가던 탬파베이는 케빈 키어마이어의 안타와 랜디 아로자레나의 볼넷으로 2사 1, 2루의 찬스를 열었다.

후속타자 필립스는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구를 날렸다. 그런데 다저스 중견수 크리스 테일러가 공을 한 번에 잡지 못했고, 2루 주자 키어마이어는 여유있게 홈을 밟았다.

동점까지만 허용할 수도 있었지만 또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 테일러의 송구를 받은 1루수 맥스 먼시가 홈에 던졌는데, 포수 윌 스미스가 공을 잡지 못하고 뒤로 흘렸다.

먼시가 홈에 송구했을 때 3루와 홈 사이



탬파베이 레이스 선수들이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2020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월드시리즈(WS·7전 4선승제) 4차전에서 8-7로 끝내기 승리를 거둔 후 기뻐하고 있다.

에 있던 아로자레나는 스미스가 공을 잡지 못하자 곧장 홈으로 파고들었고, 경기는 끝이 났다.

탬파베이 타선에서는 아로자레나가 4회말 홈런으로 단일 포스트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9개)을 작성하는 등 4타수 3안타 1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다.

다저스 마무리 투수 켈리 쟈슨은 ⅔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점)을 기록하고 패전의 멍에를 썼다.

탬파베이의 한국인 타자 최지만은 다저스가 좌완 홀리오 우리아스를 선발로 내세움

에 따라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대타로 출전했다. 6회 대타로 나선 최지만은 안타 없이 볼넷 2개에 1득점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6회초 무사 1루에서 볼넷을 골라 로우의 역전 3점포에 발판을 냈다.

선두타자로 나선 8회초에도 볼넷으로 걸어나간 최지만은 윌리 아다메스의 안타로 2루를 밟았다. 최지만은 대주자로 교체돼 이날 경기를 마쳤다.

한편 다저스와 탬파베이의 WS 5차전은 26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다.

김희희기자



토트넘 손흥민이 지난 2019년 12월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번리와의 16라운드 전반 팀의 세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 손흥민, 번리 상대 4경기 연속·시즌 10호골 도전 지난해 12월 번리전 70m 돌파 골...EPL·BBC 올해의 골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의 인생 장면이나 다음없는 70m 돌파 골을 기록했던 상대 번리를 상대로 4경기 연속골, 시즌 10호골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오는 27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번리의 터프 무어에서 번리를 상대로 2020-2021 EPL 6라운드를 갖는다.

손흥민이 최근 매서운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데다 상대가 번리라는 점이 팬들의 큰 기대를 모은다.

번리는 손흥민이 자신의 인생 골과 같은 70m 돌파 골을 기록했던 상대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의 2019-2020 시즌 16라운드에서 전반 32분 토트넘 진영에서 70m가량을 질주해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 수비수 6명을 스피드와 속임 동작으로 모두 따돌리며 번리의 골네트를 갈랐다.

영국 BBC, EPL 사무국 선정 '올해의 골'에 선정됐을 만큼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을 놀라게 했던 원더골이었다.

토트넘 구단은 번리와의 경기를 앞둔 지난 24일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흥민의 70m 질주 득점 영상을 게재하며 다시 한번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초반 유난히 빠른 득점 페이스로 데뷔 후 최고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3일 LASK 린츠(오스트리아)와의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J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후반 17분에 교체돼 약 30분만 뛰고도 1골을 추가했다.

손흥민 입장에선 컨디션 조절과 골 감각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3경기 연속골로 총 8경기 만에 벌써 시즌 9호골(4도움)을 신고했다.

리그 5경기에서 7골(2도움), 유로파리그 예선을 포함해 3경기에서 2골(2도움)을 기록했다.

경기당 1.13골의 가공할 공격력이다.

조세 무리뉴 토트넘 감독이 압박할 일정을 소화하며 체력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조절한 부분이 번리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무리뉴 감독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스스로 월드클래스 선수임을 증명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매 시즌 손흥민은 자신이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줬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순 없다"고 극찬했다.

최근 현지에선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여부가 큰 관심사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5년간 총액 6000만 파운드(약 885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뜨거운 손흥민이 다시 한 번 번리를 상대로 인생 장면을 연출할 수 있을지 흥미롭다.

김민정기자

## '김단비 25점' 신한은행, BNK 꺾고 2연패 탈출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이 부산 BNK를 제물로 2연패에서 탈출했다.

신한은행은 25일 부산 BNK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BNK와의 경기에서 BNK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74-72로 진땀승을 거뒀다.

2연패를 끊은 신한은행은 3승째(2패)를 따내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2승 3패가 된 BNK는 부천 하나원큐와 공동 최하위가 됐다.

김단비는 경기 종료 21초 전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25득점 8리바운드로 활약해 신한은행 승리에 앞장섰다. 이경은은 3점포 세 방을 포함해 19점을 넣으며 승리를 쌍끌이했다.

BNK는 경기 종료 직전 김희진이 시도한 3점슛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김진영(17득점), 안혜지(15득점 6어시스트),

진안(12득점 15리바운드)이 분전했다.

2쿼터 초반 23-17까지 앞섰다가 역전당한 신한은행은 전반 막판 이경은, 김단비의 연속 득점으로 29-30을 만들었다.

신한은행은 3쿼터 초반 김진영에 연달아 골밀 득점을 허용하면서 끌려갔지만, 쿼터 중반 이경은, 김단비가 연달아 3점포를 터뜨려 51-52까지 추격하던 김단비의 골밀슛으로 역전했다.

3쿼터 막판 한재진, 김단비가 차례로 3점포를 꽂아넣어 62-57로 앞선 신한은행은 4쿼터 초반 김수연, 이경은의 득점으로 더욱 점수차를 벌렸다. 4쿼터 중반에는 이경은의 3점포와 김단비의 골밀슛이 터지면서 71-64까지 앞섰다.

BNK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김희진의 3



점포로 기세를 끌어올린 BNK는 구슬이 연속 4득점을 넣으면서 경기 종료 43초 전 72-72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경기 종료 21초를 남기고 김단비가 골밀슛을 성공, 다시 리드를 가져갔다.

이어진 BNK의 공격 기회에서 김희진은 경기 종료 직전 3점슛을 시도했고, 림을 통과했다. 이 슛이 인정되면 BNK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경기가 종료된 뒤 슛을 던졌다는 판정이 내려져 승리는 그대로 신한은행의 몫이 됐다.

뉴시스